

중국 국무원 외국인투자유치 지침 발표. 핵심영역은 바이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지침을 발표함.
 - 8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3개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이러한 상황에서 8월 13일 일요일 저녁, 중국 국무원은 중국이라는 초대형 시장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 외국인 투자를 강도있고 효과있게 유치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24개 의견이 담긴 외국인 투자 활성화 지침(가이드)을 발표함.
 - 가장 먼저 언급된 지침내용에는 중점 영역에서의 외자 유치 강화가 포함되었음. 중점 영역 중에서 특히, 바이오의약 분야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착륙 및 생산을 가속화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해외에서 시판되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의 중국 내 임상시험을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이미 해외에서 시판되고 중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의 시판 등록 신청절차를 최적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정부의 조달 사업과 지원 정책에 외자기업도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외자기업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 특히, 외자기업의 투자 권익을 지켜주고, 지적재산권의 행정적 보호를 강화하며, 외자기업 내 외국인 임원 및 기술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중국 거주 정책을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홍콩 SCMP**는 중국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바이오에 베팅하고 있다고 언급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무원이 8월 13일 24개 조치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침을 발표하면서 바이오의약품 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산업이 중국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주요 핵심 영역'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함.
 - SCMP는 지난해 미국이 바이오기술을 핵심기술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듯이 바이오의약품을 비롯한 바이오산업은 미-중간에 주요 전쟁터(battlegrounds) 중 하나가 됐다고 언급하며 양국간 투자에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함.
 - 중국의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제한 해제와 함께 올해가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부진한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발표됨. 중국외환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금년 2분기 외국인투자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 직접투자부채(Direct Investment Liabilities)는 전년 동기 대비 87%가 감소해 역대 최저인 49억 달러를 기록함. 또한, 금년 7월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2.7% 감소한 7036억 위안(970억 달러)을 기록하였음.

-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해외 제약사들은 미-중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해외 다국적 제약사들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즈는 중국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미중간 긴장 악화에 대비해 별도 법인을 홍콩이나 상하이에 설립해 상장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23.6.19).
- 미국의 모더나는 중국 상하이시와 mRNA 백신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MOU를 체결함(2023.7.5).
- 중국 상무부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로슈, 머크 등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직면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함(2023.7.5).

<참고> 중국 국무원 외국인투자유치 지침(2023.8.13)

■ 외자 활용의 질 향상

- (1) 핵심 분야에서 외국 자본 유치의 강도를 높인다.
- (2)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범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3) 외국인 투자 유치 채널을 확대한다.
- (4) 외국인 투자 기업의 그라데이션 이전을 지원한다.
- (5) 외자사업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가적 대우 보호

- (6)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부 조달 활동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 (7) 외국인 투자 기업이 표준 제정에 동등한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8) 외국인 투자 기업이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외국인 투자 보호 계속 강화

- (9) 외국인 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 (10) 지적 재산권의 행정적 보호를 강화한다.
- (11) 지적 재산권의 행정 법 집행의 강도를 높인다.
- (12) 외교 관련 경제 및 무역 정책 및 규정의 수립을 표준화한다.

■ 투자 및 운영 촉진 수준 향상

- (13)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거주 정지 정책을 최적화한다.
- (14)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위한 편리한 보안 관리 메커니즘을 탐색한다.
- (15)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 집행 검사를 조정하고 최적화한다.
- (16)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서비스 보호 장치를 개선한다.

■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 (17) 외국인투자촉진기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 (18) 국내에서 재투자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장려한다.
- (19)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된 특혜 세금 정책을 시행한다.
- (20) 국가가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지원한다.

■ 외국인 투자 촉진 방법 개선

- (21) 투자 유치를 위한 완전한 작동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22) 해외 투자 촉진 노력을 촉진한다.
- (23)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채널을 확대한다.
- (24) 외국인 투자 촉진 평가를 최적화한다.

<참고자료>

1. 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 2023.8.13.
2. China investment: Beijing hones in on biotech in fresh pitch to woo foreign business, SCMP, 2023.8.14
3.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 위해 생명공학에 베팅, 연합뉴스, 2023.8.15.
4. 미-중 지정학적 갈등 악화 대비 아스트라제네카의 중국사업 검토방안, 한국바이오협회 이슈브리핑, 2023.7.7